

크리스 커닝햄의 작품에서 표현된 그로테스크 신체

Expression of Grotesque Body in Chris Cunningham' Work

김 호, 김재웅

중앙대학교, 첨단영상 대학원 박사과정, 중앙대학교, 첨단영상 대학원

Ho Kim(hkeffort@nate.com), Jae-Woong Kim(kunstoma@yahoo.co.kr)

요약

최근 신체는 미의 범주에서 점차 확대되어 환경에 의해 변형되는 유기적인 매체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신체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술 발달의 의해 변형되고 왜곡되어 더 현실감 있게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과장된 신체의 이미지에서 관객들은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받게 된다. 영국 감독 크리스 커닝햄은 그로테스크 신체를 주제로 영상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작품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카니발적, 언캐니적 그로테스크 신체 표현 방식의 단계와 그로테스크 신체 이미지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접근 하였다.

■ 중심어 : | 그로테스크 | 신체 | 카니발 | 언캐니 |

Abstract

In the recent past, the impression expressed by a human body expanded from that of aesthetic beauty to deformed organic medium influenced by environment. And the advancement in digital technology had made it possible to represent the deformed and distorted images of human body more realistically. Consequentially, these exaggerated physical images leave audiences with a feeling of grotesqueness. Chris Cunningham is a British director who mainly focuses on grotesque body as his subject matter using digital media. This paper will explore Chris Cunningham's work and his final goal through analyzing his carnivorous, uncanny grotesque body images, making use of the figital media, at each of his different levels.

■ keyword : | Grotesque | Body | Carnival | Uncanny |

I. 머리말

1. 연구 목적과 방법

1980년 이후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 영상은 비디오 아트, 영화특수효과, 애니메이션, 광고, 게임, 그리고 웹 등 여러 모습으로 통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활용분야는 이제 모든 분야

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로 자리매김을 하며, 현재의 영상은 이제 더 이상 디지털로 제작되었다는 것만으로 혁신을 얘기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뒤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뒷받침을 해야만 한다.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전은 기존에 아날로그 시대에 이루어내지 못한 충격적이며, 다양한 스펙터클 효과를 실현시키고 있다. 이는 점차 시각적 효과를 더 사실적으로 표현

하고,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화 시키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단순한 신체미의 표현이 아닌 신체 변형, 신체의 분절 등 신체를 다양한 형태의 표현으로 시도하고 있다.

크리스 커닝햄이 그의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신체에 대한 담론인데, 이는 1980년 후반부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신체라는 주제는 ‘미’라는 일차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신체로의 해방’으로 확산, 전이되며, 많은 예술영역 분야에서 신체의 문화적 범주와 관련된 그로테스크 표현 현상으로 확대되어 갔다. 현대의 많은 작가들이 그로테스크한 신체표현을 그들의 예술영역에 끌어들여 사용하고 있는데, 문명화된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로테스크의 대상은 옛날보다 그 양상이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영국 출신의 크리스 커닝햄은 다른 작가와 다르게 현대 인간의 소외에 관한 영상을 남다른 미학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가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로테스크 신체를 통한 신체의 붕괴, 신체의 변형, 신체의 확장이라는 독특한 표현 방식을 단계적으로 분석을 하여 현대 인간 사회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분석할 작품으로는 “레프트 필드, Leftfield”, “컴 투 대디, Come to Daddy”, “윈도우 리커 Windowlicker”, “러버 조니, Rubber Johnny” “올 이스 풀 오브 러브, All is Full of Love” 이다. 그가 1996부터 1998년까지,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만든 이 작품들은 크리스 커닝햄을 대표할 만한 신체와 관련된 그로테스크의 성향이 짙은 작품들이다.

II. 그로테스크와 신체적 표현

1. 그로테스크의 개념

일반적으로 기괴하게 우스꽝스럽던지, 이상하고 끔찍스러운 장면을 보았을 때 그로테스크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그로테스크라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술에서 하나의 두드러진 양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선, 그로테스크의 뜻을 살펴보면, ‘괴이한’, ‘기묘한’, ‘우스꽝스러

운’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15세기 말엽에 로마에서 발굴된 지하 동굴의 장식에 묘사된 동식물의 혼합된 이질적인 부조리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서 유래한다. 이후 유물이 발견된 동굴을 일컫는 ‘그로토’(grottoe)를 일컫는 이탈리아어 ‘그로테스키’(grotteschi)에서 유래된 말이며, 일반적으로 건축과 장식예술에서 동물, 사람, 식물 모양을 함께 사용하여 만든 환상적인 벽장식이나 조각장식을 일컫는다.¹ 이후 이 용어가 이후 미술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 비미술 분야까지 확대 되었다. 회화에서는 15세기 보슈의 기이한 그림들이 있고, 문학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 신체’라는 개념은 16세기 초반 프랑소와 라블레(Francois Rabelais)의 소설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에서 언급되었다. 라블레에게 있어 그로테스크한 기법은 세계에 대한 그릇된 전체상을 파괴하고 재정립하며, 사물과 관념 사이에 허위로 가득 찬 위계적 연결 관계를 분리시키고, 사물들을 그로부터 해방시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타고난 본성에 맞는 자유로운 결합과 이상적인 생명성의 고양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예술적 욕구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18]. 이후 낭만주의의 퇴조와 함께 사실주의 회화가 등장하면서, 19세기 말경 그로테스크 표현이 축소되었다가, 20세기에 다시 활성화 되었다. 대표적 인물이 독일의 비평가인 볼프강 카이저인데, 그의 저서 <예술과 문학에서의 그로테스크 The Grotesque in Art and Literature>에서 그로테스크의 양면성을 강조하였다. 즉 우스꽝스러운 것과 끔찍한 것의 섞임, 친숙한 세계가 갑자기 낯설어짐 등 서로 겹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 그로테스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는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지나침과 과장, 비정상성, 풍자적인 것과 장난스러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조화는 서로 이질적인 것의 혼합 또는 융합을 나타내며,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작품에서 서로 균형 있게 혼합되지 못하여, 기본적으로 희극적이지만 공포감을 자아낸다던지 혹은 그 반대가 되는 경우이다. 지나침과 과장은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특성으로 희극적인 현실과 비현실을 이 극단

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britannica.co.kr

적으로 뒤엎히는 것을 나타낸다. 비정상성은 재미와 혐오, 웃음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는 비정상적임을, 풍자적인 것과 장난스러움은 다소 과격하면서 천박하며 충격적인 영향이 강한 것이다.

그로테스크에 대한 담론을 이미 많은 분야에서 담론을 다루고 있다. 흔히 신체를 통한 에로티시즘과 함께 많이 표현되고 있으며, 이미 현대예술에서도 신체 미술가 및 영상 제작자가인 메튜바니, 키키스미스, 신디셔먼 등이 그로테스크를 주제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이고 있다.

2. 신체의 개념과 표현

몸은 기표(Signifier) 이자 기의(Signified)이다. 이미 신체는 단순히 몸이라는 의미 이외에 많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신체를 통해서 자기 밖의 외부와 교류를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는 환경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유기적인 매체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전의 신체는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많이 표현되었지만, 1980년 이후에 신체는 더 이상 미의 대상인 아닌, 주변과의 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하는 문화적, 환경적으로 지배 받는 신체가 되었다. 예를 들어 미스코리아 선발기준을 볼 수 있다. 과거 미스코리아는 아름다운 얼굴과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외적인 미 뿐 만 아니라, 매너나 교양 및 지적 수준 등 내적인 요소까지 심사 기준으로 확장하여, 어떻게 각 나라의 미를 대표하는지 문화적으로 새롭게 인식 되어 지고 있다.

트랜스젠더나 성형수술의 경우와 같이 신체를 의학적인 수술을 통해, 성과 정체성을 자신이 원하는 대상으로 변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서는 유전자 조작도 가능해 이는 몸의 총체성을 잃고 유기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원형이 부재한 신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술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서양 미술에서 정확한 신체의 비례는 미의 척도가 되었지만, 현대 예술가들은 신체를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존재가 아닌 무감각하고, 무의식적이며, 자아를 상실한 모습으로 여기게 되어버렸다. 급기야

1990년대 현대 미술 작품에서 두르러지게 나타나는 절단되고 변형되어진 그로테스크 성향이 짙은 신체는 미의 개념으로 재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변형되고 왜곡되어 변방의 범주인 추의 개념으로 작업을 하는 성향이 많아져 관중들에게 희극적인 요소와 섬뜩한 요소로 전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신체에 대한 예술적인 관심은 신체가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이 되면서 인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그로테스크의 신체의 표현적 특성

일반적으로 신체를 왜곡하거나 변형한 작품들의 특징을 보면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자아낸다. 위의 [표 1]에서처럼 신체를 통해 나타나는 그로테스크의 표현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이 언급한 카니발 그로테스크(Carnival Grotesque)와 매리 루소(Mary Russo)가 언급한 언캐니(초자연, 기괴한) 그로테스크(Uncanny Grotesque)이다.

표 1. 카니발 그로테스크와 언캐니 그로테스크 비교

카니발 그로테스크	언캐니 그로테스크
물리적인 것에 의존	허구적 담론에 의존(심리적)
물리적 신체를 강조	인간의 원천적 소외를 강조
사회주의적 포스트모던 담론	정신분석학적 포스트모던 담론
이중적, 왜곡, 변형, 비천함	이중적, 왜곡, 변형, 비천함
희극적 장르	공포와 비극적 장르

우선 카니발 그로테스크(Carnival Grotesque)는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이 라블레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카니발 그로테스크로 확장 시켰다. 카니발은 의식적인 불거리 즉 행렬, 쇼, 춤 등을 포함하고 구체적으로는 풍자, 언어사용, 외설 등이 포함된다. 본질적으로 큰 범주에서의 카니발 그로테스크는 쾌락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인간이 신체를 통해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카니발 그로테스크는 신체를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희극적으로 표현하는 신체의 범주이다. 반면에 언캐니 그로테스크(Uncanny Grotesque)는 심리 범주에 속하며, 섬뜩하고, 무서움을

느끼는 공포요소 등이 포함된다. 이는 매리 루소(Mary Russo)가 소의 개념을 토대로 카이저의 '모던 그로테스크 이론' 과 프로이드의 '언캐니' 개념을 사용하여 언캐니 그로테스크를 완성 시켰다. 결국 바흐친의 카니발 그로테스크와 카이저, 프로이드의 언캐니 그로테스크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양자가 대립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적이다[12]. 크리스 커닝햄 작품에 표현되는 그로테스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적시적소에 포함하고 있지만, 인간의 소외나 신체의 변형을 통해 허구적 세계를 전체적인 작품의 틀로 형성하고 있는 그의 작품은 언캐니 그로테스크 성향이 더 짙은 것을 볼 수 있다.

III. 크리스 커닝햄의 작품분석

1. 크리스 커닝햄의 예술관

1970년 영국 출신의 크리스 커닝햄(Chris Cunningham)은 크리스 홀스(Chris Halls)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는 페인티어이자 조각가이며, 영화 캐릭터 디자이너, 광고 제작자, 특수효과 제작자인 동시에 뮤직비디오 감독이기도 하다. 크리스 커닝햄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주제는 '신체'에 관한 것이다. 그의 영상에서는 인간의 신체를 기이하게 재구성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고, 상당 부분 이러한 그로테스크 성향이 강한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자유분방한 상상력, 금기에의 도전, 엽기적인 이미지, 코믹한 풍자성, 변형된 신체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의 대부분의 작품은 음악을 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에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모든 작품들이 내러티브 구조보다는 시각적 표현이 강조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기본적으로 내러티브 구조가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의 작품에서는 그로테스크한 신체를 변형해 시각적인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음악과 영상의 오묘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그의 '신체'에 대한 작업은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신체의 붕괴', 둘째는 '신체의 변형', 셋째는 '신체의 확장' 단계로 분류가 된다. 이러한 단계는 신

체 미술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이전에 미가 중심이 되었던 신체는 정체적이고 영원한 신체였으나, 환경 속에서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는 미의 규칙에 저항하는 일시적이고, 해체되어 조각난 신체로 표현되었으며, 이후 신체의 한계를 능가하면서 신체 부분의 재조합으로 변형이 가능한 이중신체로 표현되었다. 이는 곧 복합적인 성, 즉 초성별성으로 발전되어 포스트 휴먼 형태인 사이보그로 발전되었다. 크리스 커닝햄도 신체의 담론을 주제로 자신의 작품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였으며, 콜라주 형식으로 몸을 재구성하며 기이하게 변형된 신체를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으로 확립된 이상적인 신체의 미를 뒤집어 버린다. 이런 신체의 모순되고 부조리한 구성은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나타내는데, 볼프강 카이저에 의하면 그로테스크는 낯설어진 혹은 소외된 세계의 표현이다. 즉, 새로운 관점에서 봄으로써 친숙한 세계가 갑작스럽게 낯설어진다고 한다[4]. 이 밖에 그로테스크가 가진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지나침과 과장, 비정상성, 풍자적인 것과 장난스러운 현상들은 모순과 갈등이란 큰 범주에 속한다. 독일의 문학 이론가인 지그프리트 멜칭거(Siegfried Melchinger)는 모순과 갈등을 모든 예술 창작적 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전체 조건으로 보았다[13]. 크리스 커닝햄은 본인의 작품을 통하여 각박하게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문이자 의구심을 표현하고 나아가 실존적인 본인 자아의 상징으로 '신체'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2. 크리스 커닝햄의 작품에 나타난 신체



그림 1. <레프트 필드, Leftfield>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리스 커닝햄의 작품은 신체의 변형을 통해 그로테스크한 시각적인 표현을 강조해 음악과 영상의 분위기를 맞추고 있으며, 그는 작품에서

그로테스크한 신체를 가장 중심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그의 초기 작품인 [그림 1] “레프트 필드, Leftfield”는 ‘신체의 붕괴’ 단계를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신체의 붕괴는 뉴욕 할렘의 빈민촌 출신으로 등장하는 소외된 흑인 주인공을 통해 보여준다. 뉴욕시를 돌아다니지만 부랑자의 모습을 한 흑인은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받는다. 이 작품에서는 부랑자의 모습을 한 흑인의 신체를 지지 분하고 으스스한 눈을 가진 ‘추’의 개념으로 이끌어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자아낸다.

미와 추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백인은 ‘미’, ‘지배적 권력’, ‘고급문화’로 상징화 되었으며, 흑인은 ‘추’, ‘피지배자’, ‘저급문화’로 표현이 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과의 융화에서 소외되어 자신의 모습 자체가 서서히 부서지는 단계를 흑인과 백인과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컴 투 대디, Come to daddy>

위의 [그림 2] “컴 투 대디, Come to Daddy”, 아래의 [그림 3] “윈도우 릭커, Windowlicker”에서는 ‘신체 붕괴’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신체의 변형’ 단계를 보여주는 데, 이 두개의 에이펙스 트윈 (Aphex Twin)의 뮤직 비디오에는 신체를 더 이상 해체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이를 ‘불균형’, ‘불합리’, ‘기형’으로 표현하면서 남녀의 젠더가 기이하게 변형되어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컴 투 대디”에서 보여주는 에이펙스 트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꼬마아이들이나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괴물들은 이상할 정도로 신체가 왜곡되어 보이고 있다.



그림 3. <윈도우 릭커, Windowli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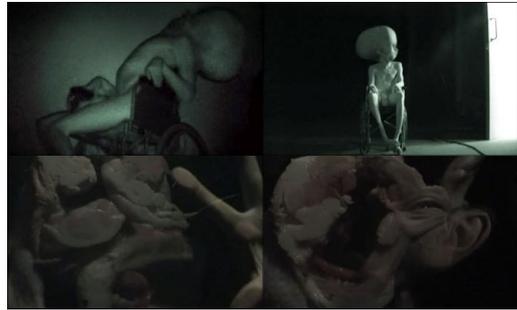


그림 4. <러버 조니, Rubber Johnny>

“윈도우 릭커”에서도 에이펙스 트윈의 모습으로 대체된 댄서들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한 신체의 특징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신체의 한계를 능가하면서 다른 제 2의 신체를 창조하는 생성의 행위 속에 있는 ‘이중 신체’라는 점이다. 그로테스크 신체는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인 신체적 억압에 도전하는 저항적인 신체로서 여성적 그로테스크 신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나중에 [그림 4] “러버 조니”에서 크리스 커닝햄이 자신의 신체를 더 과격하게 변형하고 왜곡하여 여성 그로테스크 신체에 머물지 않고 초성별화되고 양성화된 속성을 보여 주제를 좀 더 발전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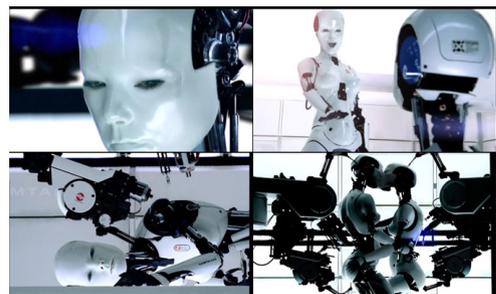


그림 5. <올 이스 풀 오브 러브, All is Full of love>

마지막으로 신체의 개념적 확대로서 기계이미지를 드러내는 '신체의 확장' 단계에 관한 부분은 [그림 5] "올 이스 풀 오브 러브, All is Full of Love"에 나타나는 신체의 대리물이라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올 이스 풀 오브 러브"는 메튜 바니 (Matthew Barney)의 부인으로도 잘 알려진 아이리시 출신 가수인 비요크 (Bjork)의 뮤직 비디오인데, 여기서 크리스 커닝햄은 더 이상 신체를 인간 에 국한된 이미지가 아닌, 기계 이미지로 탈신체화 하게 된다. 흰색 공간에 누워있는 한 명의 안드로이드는 신체의 조립이 끝난 후 영혼을 얻고, 그 안드로이드는 바로 자신과 같은 모습을 한 다른 안드로이드를 만나게 되어 사랑을 하게 된다. 이 작품은 영혼을 얻은 로봇 역시 사랑을 먼저 알게 된다는 내용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각적 감수성이 녹아들어있다. 여기서 로봇의 사랑이 순수하다는 것은 로봇과 전체 배경의 색이 '흰색'으로 상징화 되어 있다.

3. 크리스 커닝햄의 작품과 그로테스크 표현

"컴 투 대디"에서 크리스 커닝햄은 사물의 밝은 측면만 선택해서 보는 것을 거부하였다. 어른들에게 비쳐진 아이들의 모습은 예쁘장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영상에 담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어린 시절의 슬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고, 만약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석이 눈에 띄면 불쾌하게 생각한다. 크리스 커닝햄도 이러한 인습적인 요구 사항을 무시했다. 이는 그가 깊은 연민과 동정심을 지니고 관찰했음이 틀림없다. 그는 이 작품에서 아이들의 꿈, 동경, 어색한 동작, 아직 자라고 있는 신체의 불균형을 잘 포착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아이들이 향방한 주택가를 달려가는데, 이 아이들의 얼굴은 모두 에이펙스 트윈의 가면을 쓰고 입이 귀에 닿을 정도로 웃고 있는데 이 얼굴을 본다면 아마 귀엽다는 느낌보다는 공포스럽고 섬뜩한 그로테스크의 한 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코믹한 얼굴을 만들면 어린아이들은 코믹하게 웃는다. 그러나 일정한 얼굴의 일그러짐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더 이상 코믹스러움 보다는 공포

포심을 가지게 되어 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로테스크가 가진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복제되고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비정상적인 아이들은 악마주의적이고 디오니소스적인 느낌까지 자아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작품 중간에 동요가 나오며 아이들 두 명이 손을 잡고 카메라 앞으로 뛰어오는 장면은 괴기스러운 동시에 코믹하다. 다시 아이들은 주택가를 가로지르며 서로 치고 받는, 아이들이 하기에는 장난의 수위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한다. 작품 속에 나오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괴물의 정체 역시 에이펙스 트윈이다. 여기서 괴기스러운 악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대비된 조명을 쓰고, 웃는 영상조차 과장 되었다. 그 괴물은 "나는 네 영혼을 원해, 네 영혼을 잡아먹을테야"라고 외치는 왜곡된 보컬 음색, 극대화된 공격적 사운드와 함께 일그러진 얼굴 영상이 비춰지며 텔레비전 속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낸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사실은 괴물의 아이들이라는 역설은 생각할 수 록 소름끼친다.

크리스 커닝햄이 1년 뒤에 만든 "컴 투 대디"의 후속작인 "윈도우 리커"에서는 에이펙스 트윈의 얼굴이 글래머한 여성들로 바뀌어서 등장하게 된다. 남녀 신체의 성적인 모호성과 함께 기형적 변형을 통하여 신체를 재생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이펙스 트윈의 음반 커버 또한 뮤직비디오의 이미지와 통일된 개념으로 구성되어 사악하면서도 어딘가 코믹하고, 공포어린 듯 하고, 감직 하기도 하다. 이런 변태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미지를 쌓으려고 하는 이유는 왜 일까? 그것은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일컫은 '두려운 낯섦'이라는 언캐니(Uncanny)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역설적이게도 이미지를 인식시키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마치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비꼬듯 세상의 부조리를 다루는 것 같다. 크리스 커닝햄은 이 작품에서 사회 문화적인 모든 금기로부터의 해방과 그러한 금기에 대한 비판 및 저항의 자유를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올 이스 풀 오브 러브"에서 보여주는 흰색 공간에서 인간과 비슷한 형상을 한 두 안드로이드가 서로 사랑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섬뜩한 느낌을 자아낸다. 흔히 사랑

은 살아있는 생명체나 인간의 형상이 아닌 물체가 인간처럼 행동할 경우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우리는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인간과 비슷하나 행동과 형상이 똑같지 않아서 희극적인 요소를 주는 동시에 인간의 형상을 한 살아있는 물체에 대한 두려움이 섬뜩한 느낌을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IV. 디지털 미디어로 통한 그로테스크 신체의 확장

현대의 많은 예술가들은 여러 방면에서 그로테스크를 주제로 담론을 만들어 왔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이런 신체를 기이하게 확장하는 그로테스크의 표현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더 다양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기존에 아날로그 시대에 구현하지 못하였던 효과를 더 용이하게 하여 해체와 조합으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아내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달로 신체의 미적 표현 요소는 물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상징적 요소로 재현하고 있다. 물질만능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가치는 하락하고, 인간의 모습은 물질과 동일시되어 기계적인 인간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의 특정 예술 계통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그로테스크 신체는 이제는 하나의 미디어 콘텐츠로 자리매김을 하여 텔레비전나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형식인 영화, 드라마 등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서 현대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관한 소재로 다가서고 있다.

V. 맺음말

크리스 커닝햄의 영상에 표현된 그로테스크한 신체 이미지들은 항상 양극적인 두 세계를 대비시키면서 부조리하고 비서사적인 이야기를 이끌고 있다. 크리스 커닝햄의 작품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로테스크한 신체 이미지들은 현대사회에 살면서 유기적으로 변하는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하나의 신체 담론이기도 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그로테스크 신체를 주제로 삼아 작업을 한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신체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작업을 하였으며, 일차적 단계인 “신체의 붕괴”에서는 환경 속에서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미의 규칙에 저항하는 일시적으로 해체되는 신체로 표현되었으며, 두 번째 단계인 “신체의 변형”은 신체의 한계를 능가하면서, 특정 신체부분이 재조합을 통하여 변형 가능한 이중 신체로 표현되었다. 마지막 단계인 “신체의 확장”은 초성별성으로 표현되어 포스트 휴먼 형태인 사이보그로 발전되었다. 크리스 커닝햄 작품에서 변형되고 왜곡된 기이한 신체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는 희극적인 동시에 섬뜩한 느낌인 카니발적 요소와 언캐니한 요소를 함께 느끼게 된다.

오늘날 그로테스크 신체의 표현은 더 과격하고 즉흥적으로 표현되어 웬만한 충격은 항상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그로테스크 신체 표현 방법은 단지 유행성과 주체성이 없는 충격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의 미래 영상의 한 분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촉매제로 사용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1] 류종영, *웃음의 미학(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20세기까지 서양의 웃음이론)*, 유포서적, 2005.
- [2] 수유연구실 +연극공간 ‘너머’, Book+ing 책과 만나다, 그린비, 2002.
- [3] 오채운, *현대시와신체의은유*, 역락, 2006.
- [4] 필립톰슨, 김영무 옮김, *그로테스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 [5] 메를로 폰티, 류의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 [6]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 폰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이해*, 이학사, 2004.
- [7] 한자경, *자아의 연구*, 서광사, 1997.
- [8] 한림 미술관, “이대 기호학 연구소, 몸과 미술: 새로운 미술사의 시각”, 이화여자대학교, 1999.

- [9] 김부영, “현대미술에 나타난 신체성에 대한 연구, 한남 대학원”, 2002.
- [10] 김윤경, “체코 퍼핏 애니메이션에서 몸의 표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2005.
- [11] 조중현, “Jan Svankmajer의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 영남 대학원, 2000.
- [12] 전영운, 류신, “그로테스크의 형식, 내용, 수용”,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31권, pp.149-169, 2001.
- [13] <http://www.director-file.com/cunningham/>
- [14] <http://www.pitchforkmedia.com/article/feature/14680-interview-chris-cunningham>
- [15] <http://www.melon.com/juice/themeZone/JuiceGalashadaeReview.jsp?edtId=28>
- [16] http://cafe.naver.com/sjfadcinematograph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
- [17] blog.naver.com/thetree1/40009339151

김재웅(Jae-Woong Kim)

중심회원



- 1982년 2월 : 홍익대학교 미술학 (서양화)
 - 1984년 8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
 - 1992년 8월 : 독일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 Aufbaustidium
 - 2002년 3월 ~ 현재 :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과정
 - 2000년 8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과 교수
 - 2005년 3월 ~ 현재 : 만화애니메이션교육위원회 위원장
-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 교육콘텐츠, 애니메이션

저자 소개

김호(Ho Kim)

중심회원



졸업

- 1997년 9월 ~ 2001년 5월 : School of Visual Arts, B.F.A., Animation과 졸업
 - 2002년 1월 ~ 2003년 12월 : New York University, M.S., Digital Imaging and Design과 졸업
 - 2006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애니메이션 이론 박사과정
- <관심분야> : 3D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